



박소현의 섹.시.토.크

결혼 5년 차 맞벌이 부부인 친구 J는 요즘 심기 가 편치 않다. 남편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남편과의 잠자리 때문이다. 현재 J 부부의 잠자리 주기는 한 달에 한 두 번꼴이다. 그런데 J를 열 받게 하는 진짜 이유는 그 한가로운 주기보다는 남편의 태도에 있었다.

“말로는 엄청 밝히지. 오늘 밤 기대해. 나 후끈 달아올랐어. 빨리 씻고 나와... 초자녀부터 따라 다니면서 이거거든. 그런데 막상 씻고 들어가면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는 거야.”

가끔 안 잘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옆구리 쭉쭉 찌르는 아래 옆에서 보란 듯이 들이누우며 이런 맨트를 날려 주신다. ‘아 피곤해. 왜 이렇게 고단하지?’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날도 J가 옆구리 찔러대는 날이 아니라 꼭 남편이 원하는 날, 남편이 원하는 시간이라고.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니 그 성격 좋던 J도 더는 참아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내가 원할 때는 모른 척하면서 자기가 원할 때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거야? 마누라는 언제나 OK인거지?”

입에 거품을 문 J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

했다. 장시간에 걸친 자료조사와 토론이 이어졌고, 얼마 뒤 우리는 최고의, 아니 최선의 방법 하나를 찾아냈다.

한 달에 한번씩 찾아오는 ‘그날’을 디데이로 잡고 일주일 전부터 J는 남편 몸만들기 작전에 들어갔다. 저녁마다 떨이로 싸게 쟁는 구실을 내세워 잠자리를 허락해 올렸고 아침이면 마



(麻)와 우유를 갈아 먹이고 오후에 먹으라며 흥삼 액기스도 안겼다. 너무 과하게 먹이는 게 아닌가 살짝 걱정도 들었지만 독기를 품고 악착같이 먹었다.

과연 일주일 즈음 지나자 남편의 얼굴에 흥조

가 깃들고 J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착지근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등 곳곳에서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이 도왔는지(?) 토요일 아침, 그러니까 남편의 잠자리 시도가 거의 확실시 되는 날 J의 생리는 시작되었다. 남편에게는 숨기고 J는 그날 따라 최대한 약한 옷을 입고 아침부터 남

듯한 포즈로 침대에 누웠다.

한껏 들뜬 남편은 씻는 동 마는 동 하더니 침대로 돌진했다. 그리고 정신없이 본계임에 임하려는 순간, J는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 피곤해.”

남편은 황당한 표정을 짓긴 했지만 그래도 쉽게 물러날 기미가 아니었다.

“넌 그냥 누워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흠, 완전히 달아올랐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J는 결정적 한마디를 날렸다.

“나 생리 시작했거든? 그럼 나 먼저 잘게.” 그리고 남편이 늘 그러하듯 옆으로 숨그머니 돌아누웠다. 그 날 밤, 유난히 꿈끙거리며 뒤틀리는 남편 덕분에 침대가 좀 틀썩거리기는 했지만, J는 유난히 달고 단잠을 잤다고.

“어찌나 고소하던지 5년 묵은 체증이 다 사라지는 것 같더라.”

부부간에도 퍼어플레이 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상대의 욕망을 배려해 주는 것이야말로 퍼어플레이의 기본이다. 감사의 뜻으로 J가 사춘기구이를 먹으며, 우리는 J의 성공적인 복수전을 함께 기뻐해 주었다.

〈연애칼럼니스트〉

검색정정 키워드

검색

‘천상의 목소리’ 가진 英 6세 소녀 네티즌 화제

스타의 열애설과 결별설로 넷 세상이 북적거렸다. 롭스타 조승우(27)와 정려원(26)의 열애설이 보도되면서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조승우와 레원은 서울 청담동의 유명 레스토랑 ‘슈밍화’에서 디정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두 사람은 열애설을 부인하고 있다.

전 국가대표 배구선수 김세진(33)과 슈퍼모델 김효진(25)이 성격 차이 등으로 헤어졌다는 내용도 눈길을 끌었다.

여섯살짜리 여자 아이도 인터넷에서 화제다. 최근 영국 TV 프로그램 ‘브리蹲스 강 텔런트’에 출연한 코니 텔벗이 주인공. 텔벗이 천진난만한 표

정으로 ‘섬 웨어 오버 더 레인보우’를 불렀는데 심사위원과 방청객들이 ‘천상의 목소리’라며 환호했고 동영상이 퍼지면서 국내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다.

지난 14일 ‘키스데이’를 맞아 사랑 고백 방법과 선물 추천, 기념 문자 메세지 등을 찾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과격적인 노출로 논란을 일으켰던 폭시의 ‘야한 여자’ 뮤직비디오가 폴비전으로 온라인에 공개됐다는 내용도 화제가 됐다. 특히 공개된 3분 33초짜리 뮤직비디오에 멤버 중 다함이 캠핑 중 가슴이 노출되는 해프닝을 겪은 것을 비롯해 등 전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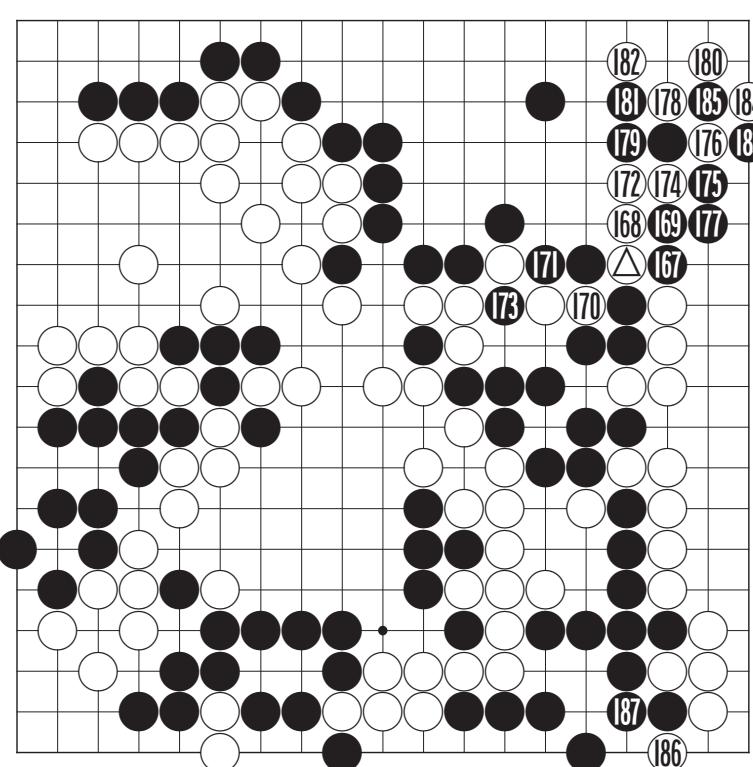
가로지르는 응문신·기모노 차림·진한 스킨십 장면, 성행위를 암시하는 장면까지 그대로 들어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몰렸고 한때 접속이 차단됐다.

이어 개그맨 신동엽과 결혼한 선혜윤씨가 생후 3개월 된 딸 지효의 사진을 미니홈피에 공개한 소식과 서울 신세계 백화점에서 선보인 기준 30cm길이의 미니스커트보다 5cm짧아진 25cm길이의 ‘나노 미니스커트’, 플레이보이 모델로 활동하다 결혼한 뒤 활동을 중단한 이파니(21)의 최근 생활을 담은 사진도 검색어에 올랐다.

/김지기기자 dok2000@kwangju.co.kr



최근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은 폭시의 뮤직비디오 ‘야한 여자’.



제16회 광주비전
직장대항
1회전

무심코 스쳐간 위기와 기회 8보(167~187)

白 최 한 용 5단
黑 백 동 융 5단
(광주시청 A)

백 ⑩는 금 중에 날려버린 통한의 한수로, ‘참고도’의 흑 1로 물고 3으로 팔구기를 했으면 9까지 꼼짝없이 백이 걸려들 뻔 했다. 이러면 바둑도 여기서 끝이다. 흑도 이제는 벼랑 끝이다. 그래서 옥새를 끌어온다. 백이 사는 정도로 타협이 이루어졌는데 최한용 5단이 184로 괘로 받아쳐 또 한비탕 소용돌이가 이는가 했으나 흑이 펜갑부족으로 승부도 여기에서 결정되고 말았다. 나머지 수순은 총보를 보기 바란다.

〈오큐컬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4097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이세돌, TV아시아선수권 우승

이세돌 9단이 14일 일본 도쿄 NHK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9회 TV바둑 아시아선수권전 결승에서 중국의 신예 천아오에 5단을 상대로 217수면에 흑불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2002년 이창호 9단이 우승한 이후 5년만에 패권을 탈환하며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세돌은 올 초 도요타 덴소배에 이어 6개월 만에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해 개인통산 일곱 번째 세계타이틀을 획득했다. 이 대회는 KBS와 NHK, CCTV 한중일 방송 3사가 주최하는 바둑 대회의 우승, 준우승자 등 7명이 출전하는 미니 국제대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27>

Is it the typhoon season now?

지금이 태풍철인가요?

A: According to the weather forecast, Typhoon Mary will strike the island tomorrow morning.

B: Is it the typhoon season now?

A: Yes, it is. In Korea, the typhoon season lasts from late July to the beginning of September.

B: Heavy rain and strong winds sometimes do great damage to our daily life. Farmers are especially afraid of them.

A: 일기예보에 의하면, 태풍Mary가 내일 아침 섬에 몰아칠 것이라고 하던데요.

B: 지금이 태풍철인가요?

A: 네, 한국에서는 태풍철이 7월 말에 시작해서 9월 초까지입니다.

B: 호우와 강풍은 때때로 우리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주지요. 농부들이 특히 태풍을 두려워하죠.

do damage to ~ : ~ 피해를 입히다

지금 날씨가 정말 좋군요!

= What fine weather we are having!

오하요우 니혼고 <927>

あの不細工なのこと言(い)ってるの

그 못생긴 여자애 말이야

A:僕(はく)が好(す)きな人は、みゆきちゃんなんだ。

B:え?あの不細工(ぶさいく)な女(おんな)のこと言(い)ってるの。

A:君(きみ)には分(わ)からないと思(おも)うけど、みゆきちゃんってすごくいい子(こ)なんだよ。

A: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미유기짱이야.

B:뭐? 그 못생긴 여자애 말이야.

A:너는 잘 모르겠지만, 미유기짱은 굉장히 좋은 아이야.

不細工(ぶさいく) : 원래는 솜씨가 서투름, 모양이 엉망임이라는 뜻이지만 ‘못생긴’이란 뜻도 있다

思(おも)う : 생각하다

すごい : 굉장히

니하오 총구워 <118>

我想存钱

저는 예금을 하고 싶어요

A: 您好！我想存钱。

Nín hǎo! Wǒ xiāng cúnqian.

닌 험아! 위 쌍향 춘 치엔.

B: 我存外币還是人民币。

Nín cún wàibì háishi rénminbi.

닌 춘 외이번 하이시 렌민비.

A: 外币。

Wàibì, wǒ cún hàngbi.

와이번, 위 춘 한방비.

B: 好的，我给您办存折。

Hǎode, wǒ gěi nín bān cúnzhé.

하오더, 위 게이 닌 벤 춘체.

A: 安녕하세요! 저는 예금을 하고 싶어요.

B: 당신은 외화를 예금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인민폐를 예금하고 싶으세요?

A: 외화요, 저는 한화를 예금하려고요.

B: 네, 제가 당신에게 예금통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存钱 [cúnqian]

예금하다

外币 [wàibì]

외화

韩币 [ha2nbì]

한화

存折 [cúnzhé]

예금통장

한자 이야기 <544>

白日場(백일장)

흰 백, 해 일, 마당 장

백일장(白日場)은 글자 그대로 하면 ‘햇볕 좋은 한낮의 야외(野外)’라는 뜻이다. 조선시대에는 송문(崇文) 풍습의 영향으로 각 고을 단위로 조아(草野)에서 학문에 힘쓰는 무명 유생(儒生)들에게 즉흥적으로 시문(詩文)을 시험하여 성적이 뛰어난 사람을 표창하는 백일장이 있었다.

이 백일장은 관리 등용제도인 과거(科舉) 형식을 본떠 시관(試官)이 임식한 가운데 시제(試題)를 내걸고 즉석에서 시문을 짓도록 하였으나, 민간차원에서 주도된 행사였기 때문에 관리로 임용되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주로 과거 지방생이나 낙방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지방유생들의 기량을 겨루어 문학적 명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방편으로 성행하였다. 김삿갓으로 유명한 김병연(金炳淵·1807~1863)의 경우도 1826년(순조 32년)에 백일장을 통해 세상에 이름이 알리게 되었다.

요즈음에는 각종 ‘글짓기 대회’를 백일장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조선의 백일장이 사전 예고 없이 즉석에서 주어지는 제목이나 소재를 가지고 시와 문장을 짓는 일종의 경연대회(競演大會)였던 것에 비하여, 오늘날에는 시기(時期)와 주제를 정해놓고 경연하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